

# 전남도, 농산어촌개발·공간정비 8개 지구 선정

농식품부 공모…국비 342억 확보  
무안·함평·영광, 생활 인프라 확충  
영암 폐기물처리공장 철거 등 추진  
“공동체 중심 살기 좋은 공간 조성”

전라남도가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대거 선정됐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

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총 8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342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무안, 함평, 영광, 3개 군 5개 지구가 선정돼 2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생활·복지·문화 인프라 확충과 주민 주도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안 일로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문화시설 및 공동체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변 마을과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무안 해제면과 함평 엄다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복지·문화·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함평 대동면과 영광 묘량면은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는 3개 지구가 선

정돼 국비 125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 핵심은 농촌 마을 내 유해시설과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된 공간을 주민 중심의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암 성산지구는 폐기물 처리 공장을 철거하고, 농업 실습 교육장, 지역 특산물 가공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수익과 농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신안 팔금지구는 유채유 가공시설, 농촌 교류 체험단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청년층과 신규 농업 인구를 유입을 촉진한

다.

나주 대산지구는 노후 축사 7개 동을 철거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촌이 공동체 중심의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꾸준한 정비와 재생사업을 통해 전남 농촌이 다시 사람이 모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시, 올 1기분 자동차세 260억 부과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1기분(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1기분 납부기한은 16~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

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입금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상이 기자

## 전남도, 인공태양 에너지 연구시설 유치 박차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 참가  
인프라강점 국내외 홍보 총력

전라남도가 인공태양 에너지 연구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13일까지 5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IFPC 2025)’에 참가해, 전남이 인공태양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알리고 유치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했다.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는 전 세계 핵융합 및 플라즈마 분야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행사다. 전남도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공태양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전남의 인프라와

정책 기반을 집중 소개했다.

전남도는 현재 총 498억 원 규모의 초전도제 시험설비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구축하고 있다.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주요 에너지 기업이 밀집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력산업 클러스터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태양광·수소 등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량 전국 1위 지역(1176GW)이라는 압도적 지역 강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전라남도 인공태양 포럼’, ‘전남 인공태양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핵융합 연구개발(R&D)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산이정원서 ‘썸머 블룸 페스타’ 운영

수국·백합 등 여름 대표 꽃 만개  
체험·물놀이·생태프로그램 다채

전라남도는 여름 정원의 절정을 알리는 ‘썸머 블룸 페스타’를 해남 산이정원에서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썸머 블룸 페스타는 봄철 ‘첫봄 페스타’, ‘금작화 페스타’에 이어 계절 연계형 행사다. 여름꽃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6월에는 사스타데이, 수국, 백합 등 여름철 대표 꽃이 정원 전역에 만개하며 관람객에게 계절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산이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자체 개발 백합 품종은 주요 볼거리로 주목된다. 초여름 개화하는 태산목 역시 고유의 향기와 크기로 여름 분위기를 더한다.

체험형 전시 콘텐츠도 마련됐다. ‘산이정원을 칠하다’는 벽화에 꽃과 곤충 스티

커를 색칠해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로, 전 연령층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수동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정원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다.

7~8월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장과 숲길 트래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원에 조성된 워터바운스 놀이터는 여름철 피서형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며, 트래킹 코스는 ‘나비정원’, ‘거미의 숲’ 등 생태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원 탐험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의 생태 교육 콘텐츠로 곤충과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운영된다. 산이정원이 보유한 자연 교육 기능을 활용한 가족형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산이정원 누리집(www.saniga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이온몰 센 삭 시티에서 열린 ‘전남 K-푸드 판촉전 in 캄보디아’ 행사에 참석,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캄보디아 ‘전남 K-푸드 판촉전’ 성료

프놈펜서 김·미역·고추장 등 선봬  
김 지사 “동남아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남지역 프리미엄 농수산물인 동남아 한류 거점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이온몰 센삭 시티’에서 ‘전남 K-푸드 판촉전’을 열어 해조류와 장류 등 36종의 전남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판촉전은 전남도의 동남아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K-콘텐츠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식품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

도록 운영됐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유통기업 캄코브라더스㈜의 킨 삭(Kin Sak) 대표와 정종웅 고문, 언 소파(Un Sopha) 이온캄보디아 이사, 정명규 재캄보디아 한인회장, 송동일 재캄보디아 농업협회장을 비롯한 현지 경제·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일반 소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남 대표 수출기업 ㈜홍일식품의 김, 미역, 다시마를 포함해 고추장, 찜장 등 총 36종의 전남산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행사에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 ‘렝(Leng)’과 함께 김밥과 미역국을 직접 만들고 나눠 먹으며 전남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주목

을 받았다.

행사장이 위치한 이온몰 센삭 시티는 주말 평균 10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로, 중산층과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점을 활용해 K-푸드 고급 이미지 구축과 수출시장 확대를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시식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캄보디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수출시장이다. 2024년 전남의 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441만 달러 규모로, 이 중 조미김(66만 달러),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67만 달러) 중심의 식품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민관합동 재난취약시설 집중점검

61일간 498곳 점검결과 공유  
드론 등 활용 정밀진단 병행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시청 총무시설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열어 61일간 진행된 집중안전점검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14일~이달 13일까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총 498곳의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했다.

점검 대상은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교량 △어린이시설 등이며, 이 가운데 443곳에서 보수·보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비상대피로 적치물 제거 △배수로 정비 △균열 보수 등이었으며, 급호동 소재 한 공동주택 주차장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열화상 카메라·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404곳(81%)에 활용해 정밀 진단을 병행했다. 또 시민안전관찰단과 주민신청제를 적극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점검은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만든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모델”이라며 “지적된 사항은 후속조치를 통해 철저히 개선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